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1. 9.(수) 조간 2022. 11. 8.(화) 11:00	배포 일시	2022. 11. 8.(화) 06:00
담당 부서 <총괄>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종준 (044-200-5280)
		담당자	사무관 양지영 (044-200-5284)

국제협력을 통한 녹색해운 및 블루카본 논의

-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각국 기후변화 전문가가 모여 녹색해운 및 블루카본 논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이하 COP27)’에서 녹색해운과 블루카본을 주제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11월 9일(수) 오전(현지시각)에 한국홍보관에서 녹색해운항로 협력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미국, 노르웨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정책실장과 존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의 환영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양국 간 국제해운 분야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술개발, 녹색항로 도입 등 해운 탈탄소화 협력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앞서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이번 COP27에 참석한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발표한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서부 타코마항 간의 녹색해운항로 협력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녹색해운항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추진을 위하여 녹색해운항로를 시범 구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무탄소 연료의 개발과 상용화 및 무탄소 추진 선박의 실증·배치에 있어 많은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10일(목)에는 블루카본 활용에 적극적인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블루카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는 블루카본 정책동향 및 활용 계획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갯벌이 연간 최대 49만톤의 이산화탄소(자동차 20만대 분량)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규명하기도 하는 등의 연구성과를 각 국에 공유하여 탄소흡수원으로써 갯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블루카본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감축수단으로써 블루카본의 잠재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국이 블루카본을 활용한 국제감축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녹색해운항로 협력과 블루카본의 가치에 대해 전세계 국가들의 뜻을 모은 의미 있는 자리이다.”라며, “해양수산부가 기후위기의 핵심 방안인 녹색해운과 블루카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종준 (044-200-5280)
		담당자	사무관 양지영 (044-200-5284)
<녹색해운>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책임자	과 장 이창용 (044-200-5830)
		담당자	사무관 임병준 (044-200-5834)
<국제해운>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허만욱 (044-200-5710)
		담당자	사무관 소현수 (044-200-5725)
<블루카본>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박자현 (044-200-5327)

참고

녹색해운, 블루카본 부대행사 개요

□ 녹색해운

- (일시/장소/참석) '22.11.9. / 한국홍보관 / 한국, 미국, 노르웨이 등
- (행사내용) 한-미 간 녹색해운항로 협력 및 국제사회의 녹색해운항로 논의 동향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 진행

내용	발표자
개회/환영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美 존케리 특사
토론세션 (70분)	
1. 한미 녹색해운항로 세부 계획 2. 저탄소·무탄소 연료, 선박 연구개발 3. 해운업계 저탄소·무탄소 대응 현황 4. 녹색해운항로 관련 IMO 대응	좌장(정서용, 고려대) 韓(해수부, 선박플랜트연구소, HMM), 美(에너지부), 노르웨이(연구기관)
폐회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 (행사의의) 해운·조선 강국인 대한민국이 국제해운 탈탄소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산업계 재도약 기틀 마련

□ 블루카본

- (일시/장소/참석) '22.11.10. / 한국홍보관 /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 (행사내용) 우리나라 블루카본 연구성과 및 정책을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국제감축수단으로서 블루카본의 가능성 논의

내용	발표자
개회	해양환경공단
기조연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발표세션 (40분)	
한국의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기여	김종성 교수/서울대
해조류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기여	Prof. Carlos Duarte/ KAUST(사우디아라비아)
호주의 블루카본 정책	호주 정부
인도네시아의 블루카본 정책 및 이행	인도네시아 정부
토론세션 (60분)	
<주제>	
1. 블루카본 감축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 - 연구개발, 자원조달, 민·관·학 협력, 지역사회 교류 등 패널 별로 하나씩 선정하여 발언	좌장: 김승도 교수(한림대) 토론자: 유연철 사무총장(UN글로벌 콤팩트, 前 기후대사) Prof. Carlos Duarte/KAUST(사우디아라비아) 권봉오 교수(군산대) 등
2. 국내 블루카본 감축노력으로 충분한가?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블루카본 국제감축사업 가능성	
폐회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 (행사의의) 블루카본의 탄소흡수원으로써 잠재력과 국제감축사업 수단으로 공감대 형성하여 IPCC 지침 기반 마련